



제 10호
2024년 김포종회 소식
www.부안임씨밀직공파.com

扶安林氏金浦宗報



◎ 발행일 : 2025년 2월 8일 ◎ 발행인 : 임종광 010-7600-8082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산재로 42-68

〈중보 인사말〉

부안임씨의 자긍심과 위상을 널리 계승 발전시킬 터



사랑하는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존경하는 임씨 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갑진년(甲辰年) 한해가 저물고 희망의 을사년(乙巳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해로 기억 될 듯하며, 향후 전망이 더욱 불투명하여 걱정과 우려를 앞고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는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연결선

상에 있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여러 면에 걸쳐 과거를 뒤돌아 보고 이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안임씨 김포종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도 이런면에서 과거도 현재도 중요하지만 목표는 미래를 지향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조상에 대한 숭조와 선양사업도 오늘을 중심으로 내일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의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김포종회가 지향하는목표인 “숭조상문(崇祖尙門), 가전충효(家傳忠孝), 예의염치(禮儀廉恥)”정신을 성실히 수행해 온 해로 기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에 그동안 우리 부안임씨 김포 종회의 반석을 다져주신 전임 임종철(林鍾喆)회장님을 비롯 역대 회장님들의 성원과 응원을 받아 제 10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조직을 재편제하고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임원들의 단합을 위해 부안시제 참배후 형님인 부안임씨 11세 휘 득충 조고님 제실을 방문해 알현 배례하고 고흥의 후손들과 뜨거운 형제애를 나누었으며, 특히 5월에는 자랑스런 우리 종회의 대표 얼굴이신 고려말 천재시인 서하 임춘 조고조님의 문학작품을 기리고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임춘문학제를 성황리에 성료했습니다. 부안임씨 김포종회의 성과와 위상을 널리 알리고 종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고 조상에 대한 선양의 마음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구도소설인 수미산을 편찬하시는 등 우리나라 문학계의 큰 어른이신 시인 고은 선생님께서 서하 임춘 문학제에 참석하시어 말씀하시길 “서하임춘 선생의 망각된 시 세계가 바람 속의 등불로 꺼져가다가 살아나 그 후손 종문의 별죽을 발판삼아 후대 시학의 경이적인 진면목이 발굴되어 임춘이 잠에서 깨어 났다”고 헌사(獻詞)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종회가 주관한 “서하 임춘 문학제는 우리 문학사에 기록될 뜻 깊은 축제였다” 라고 평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마다 문필을 숭상하고 귀한 작품을 남겼기에 각 문중마다 선조들의 문집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이지만 서하임춘 시문집 발간에 이은 선조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문학제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부안임씨 밀직공파 차원에서 이러한 문학제를 진행한 것을 두고 찬사와 격려가 답지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아시는바처럼 서하 임춘의 문명은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가전체소설 국순전(麴醇傳), 공방전(孔方傳)을 통해 학생 시절부터 모두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남기신 시문은 당대의 명문장가인 이인로가 유습하여 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그 서문에서 중국 초나라의 시인인 굴원의 작품 이소(離騷)의 풍골이 있다고 극찬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하공 조고조님께서 돌아가신지 스무해 지난뒤에 이인로가 원고 유편(遺篇)약간을 수습하여 6권으로 편집하고, 서문에 “애석하게도 하늘이 많은 날들을 허락하지 않아 저술한 것은 많지만 봉황의 터럭 하나를 보고도 죽히 아홉 종류의 날개 빛깔을 알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투철한 자아 인식의 거짓 없는 구현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상이 독창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문학사상이 임춘 조고님이 우리 가문의 어른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후대에 이르기 까지 계승 발전 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미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갓은 고난속에서도 조상님들의 빛나는 업적과 정신을 후대에까지 만만대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로도 지속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는 유구한 가문의 역사를 선대와 후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기리고 흠모하는 숭조선양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는 600년 이상 김포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끈질기게 뭉치며 오늘을 이어 살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종회는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갈길 먼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파도와 풍랑과 격랑의 태풍을 견뎌야하는 어려움도 있겠고 때로는 파사로운 태양 아래 순풍이 돛을 유연하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로지 단합과 결속입니다. 이러한 기초하에 명년에도 김포 종회는 ▲서하임춘 묘비석 설치 ▲서하임춘 장학금 수여 ▲서하임춘 문학상 공모 ▲서하임춘 시집 추가 발간 ▲조상 선영 사초사업 ▲전국임씨 시향과의 유대강화 ▲임씨 소종중간의 연결사업 ▲젊은 세대의 숭조참여 기회 확대 ▲청년회, 여성회 활성화 등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연구해 부안임씨 김포 종회가 명실상부 명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위상을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종원여러분!!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어 종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재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조상에 대한 숭조의 정신과 선양의 미덕을 높이도록 다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2월 8일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 제 10대 회장 임종광(30대)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이사회 명단

직책	이름
회 장	임종광
수석 부회장 제례위원장	임종상
부 회 장	임한기
부 회 장	임성희
운영위원장	임선기
재무위원장	임정연
재산관리위원장	임종찬
홍보위원장	임명환
이 사	임용복
이 사	임용립
이 사	임철규
이 사	임철기
이 사	임찬기
이 사	임하기
이 사	임덕기

부안임씨 밀직공파김포종회 고문단

직책	이름
문 장	임병호
명예 회장	임종철
고 문	임종학
고 문	임종근
고 문	임병일
고 문	임병운
고 문	임종문
고 문	임종선
고 문	임문기
고 문	임충실
고 문	임종훈
고 문	임종철
고 문	임용혁

2024년 김포종중 업무 및 활동 사항

〈총 회〉

2024년 1월 27일 우리종회 2023년 결산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회장 임기 만료로. 2024~2027년 신임회장에 임종광님을 감사는 임병호 상임감사, 임현기 감사를 선출하였으며, 공석 중인 문장은 임병호님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24년 이사회 회장 취임식〉

2월 3일 임종광 회장취임식을 하였습니다.



〈이사회〉

임복섭님(고흥밀직공)초청으로 석연 갤러리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식사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송년회〉

2024년 송년회를 우리종회 청년회와 여성회에서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자문회의〉

7월 25일 우리종회 임종광 회장님과 임원들은 고문님들을 모시고 종회 업무 현황을 설명하셨고 고문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운 복 중이랑 보양식을 대접하며 의미 있는 자문회의를 하였습니다.



2024 서하 임춘 문학제

2024

西河 林椿 文學祭

[서하임춘문학제]

2024년 5월 25일(토) 14:00 가현산 서하공 묘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 59-1)

西河集

서하선생 임춘시집

西河集

주최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중회

주관

서하 임춘 문학제 추진위원회

후원

김포신문사

협찬

김포문화원

식전행사 : 고유제

(서하선생 임춘시집 국역본 발간 봉정 및 서하임춘문학제 거행을 고함)

등록 및 친교의 시간

식전행사

2024 서하 임춘 문학제

〈문학제 1부〉



국민의례



국민의례 묵념



임종광 회장 개회인사



임국환 전국임씨중앙회장 환영사



임창철 부안임씨중앙회장 환영사



박윤규 김포문화원장 축하



박태운 김포신문사 대표 축하

〈문학제 2부〉

헌공다례: 김포 다도박물관 사] 예명원 손민영 이사장의 회원



〈문학제 3부〉



임종철 서하임춘문학제 추진위원장
경과보고



고은시인 헌사



임현영 문학평론가
북두칠성처럼 높고 달이 솟듯이 아름다운 문인



허형만 시인 목포대 교수
서하 임춘 문학을 오늘에 되살리는 승조정신



임성묵 25대손 공주교육장
서하임춘공 문학과 생애고찰



임종상 종회 수석부회장
서하임춘 생애고찰 해설

2024 서하 임춘 문학제

〈문학제 4부〉



이대환 소설가
사촌형이 상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낭송)



방현식 중앙대교수 소설가
장단을 지나며 (낭송)



이재영 전문 MC 사회자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v1OvLOGi5eA>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장영숙 중희여성회장
늦은 봄 피꼬리 소리 (낭송)



임철연 중희이사
영남사 죽루 (낭송)



권영진 조소영 문인
장검행 (원고없이 낭송)



홍선웅 서화 판화작가
무대 배경 2점 작가



임영하 부안 김제 서도협회회장
배너 작품 서하 시 4점



KBS진품명품 김영복 한시 문집
고문서 감정위원



〈헌사 獻詞 (묘비명 墓碑銘)〉

고난의 문창성이여 여기 복두칠성 아래 천년 시혼으로 내려와 잠드는 도다
그 이름 잊혀도 잊히지 않고 오늘에 이르니 자못 호젓한 오랜 음택이 이제
양택의 빛으로 떨치는 도다

서하 임춘선생은 고려 개국 이래 대대로 명문 행운 속에서 태어난 옥동자
손이 도다

7세에 즉흥 7언시를 지어 부모의 격려를 받은 이래 중화 고전을 하나하나
익힌 나머지 그의 박람강기는 놀라운 지경에 이르도다

그러나 정확한 생물연대조차 인멸한 신세로 추락하여 무신난의 암흑 가운데
오로지 본인 하나만 가까스로 살아남은 멸족 신분이 되도다

그 학살의 첫 대상인 왕의 총신 아버지 임광비는 즉석에서 타살되고 뒷날
어머니마저 타살되도다

아버지의 왕실 보필과 당대 신동으로 소문난 10대의 임대년(임춘의 본명)은
태자궁에 들어가 태자의 학습동문으로 확정된 터 이같은 참변을 만나도다

먼 영남으로 피신하여 궁중 가운데 살아남아 나중의 무신천하의 낯선 세상에
돌아오니 마침 옛 동문수학의 막역 이인로도 그 환란 속에서 불교승려로
숨었다가 돌아와 함께 시의 동인이 되도다

그리하여 오세제 조통 이담지 함순 황보항 등과 세칭 죽림7현의 시세계를 도다

임춘 시론은 기운생동의 기를 으뜸으로 삼은 자유분방한 세계를 주창함
으로써 그의 시가 한층 더 고양되도다

그러나 화려한 가문의 비운으로 하여금 곤궁의 극에 이르러 30대 일기로
한 많은 세상을 하직하도다

20여년 후 이인로가 남겨진 시와 전기 등을 여기 저기서 찾아내어 서하
임춘 문집을 간행하도다.

후대 논객 이르기를 ‘문장 제 1의 임춘’이라 극찬하도다

자는 기지 본명 대년 자신의 개명 춘은 도피 중의 변명이다가 필명이 되도다

아호 서하는 본디 3,600여년 전 상나라 종조의 인연처인 보주 땅 소재의
서하를 따른 바 기원전의 먼 조상과 후손의 유구한 혈친적 긍지를 이토록
체화하도다

2024년 가을 삼가 짓고 쓰도다

화보로 보는 2024년 종회 활동

<서하공 세일제>

10월 15일(음력) 인천 서구 마전동 가현산 선영 세일제는 서하공 묘소에서 묘제로 지내며 판민부사 휘 경세 제단, 문하시중평장사 공혜공 휘 숙 제단, 밀직공 휘 대광 제단에서 밀직공파 김포, 고흥, 전서공파 세종시,충청도, 판사공파 부안, 밀양관 공주에서 120여명의 후손들이 모여 정성을 올렸습니다. 또한 김포 여성회에서 헌공다례를 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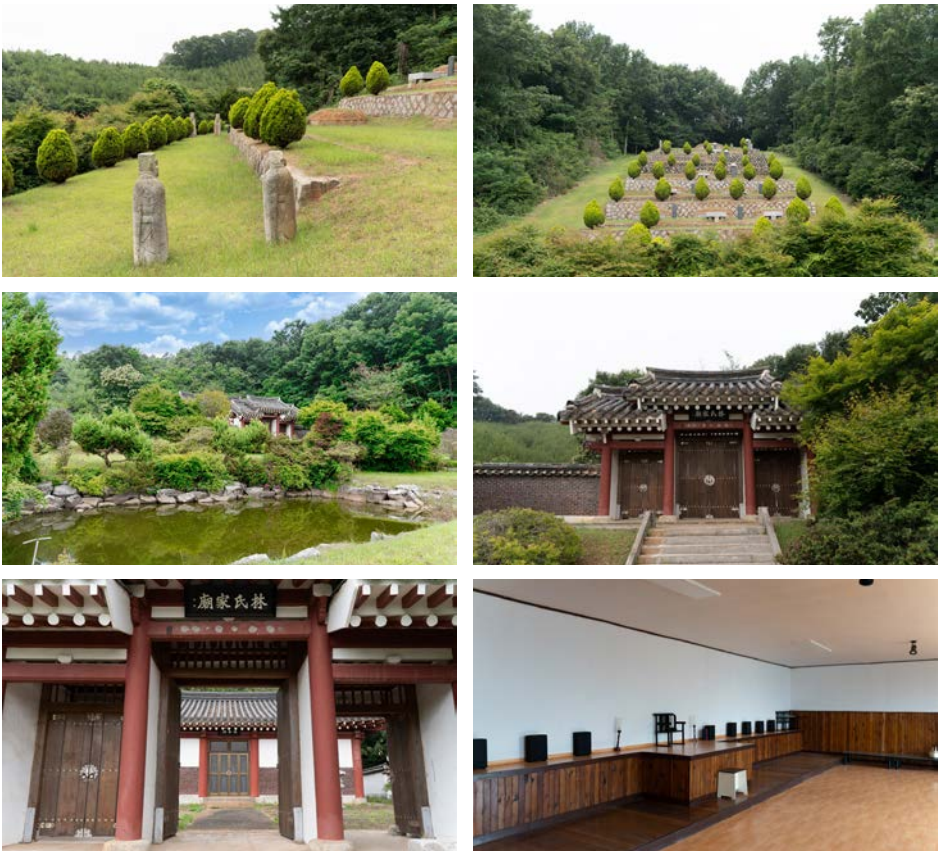


<가현산 선영>



<김포 임씨가묘 세일제>

음력10월 10일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선영 임씨가묘 유존각에서 부안임씨 11대 중훈대부 사재감정 휘 득성, 12대한림학사 휘 계정 부터13대, 14대, 15대, 16대,17대, 18대조고님의 세일제를 후손35명이 참석하여 정성을 올렸고 여성회에서 헌공다례를 행하였습니다.



화보로 보는 2024년 종회 활동

〈효 문화 뿌리 축제〉

대전 효문화뿌리축제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뿌리공원, 국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 효문화진흥원 등 효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효'와 '뿌리'의 가치를 되새기는 전 세계 유일한 성씨 축제다.

이번 축제에는 24만여 명의 방문객과 150개 문중이 참여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주민 협력형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상생축제로 발돋움했다.

이번 축제는 효문화뿌리축제의 상징인 '문중 퍼레이드' 이외에도 지역 전통 민속놀이인 부사 칠석놀이, 버드내 싸움놀이, 문창동 옛장수 놀이가 펼쳐지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효문화마켓 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면서 프린지 무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뿌리먹거리 존 문중 문화와 효를 체험할 수 있는 효뿌리 체험마을 각 성씨의 재미와 놀이를 담은 성씨 놀이터 국궁 체험장에서의 활쏘기 체험 뿌리 웰니스 밸리 전국 효문화 청소년 페스티벌 어린이 새싹 안전 마을 등 모든 세대에겐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우리 수풀 임씨는 전국임씨 중앙회 주관으로 각 관향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수풀임씨 문중대표로 행사에 참관하였다.



〈24년 임씨 유적지순례 및 대전 뿌리공원 효문화축제 참관〉

지난 10월 11~12일 전국임씨중앙회(임국환회장)에서 주관하는 유적지 및 뿌리공원(성씨퍼레이드) 행사에 우리종회 임종찬, 하기, 찬기남과 같이 4명이 참관하였습니다. 8개 관향 40여명이 단체버스로 출발하여 예천관(옥천서원), 장흥관(물체당 문화재), 평택관(임경업장군묘소)를 해당 관향 회장님의 안내를 받아 참배하였습니다. 12일에는 대전 뿌리공원 효 문화 축제에 직접 오신 종인들과 함께 100여명의 임씨가 성씨 퍼레이드를 행진하였습니다. 이후 임도수 전국임씨 회관장님 추진위원장의 추진과정의 경과보고를 듣고 1박2일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벌써 여러 해 째 진행되는 뿌리공원 효문화축제가 우리 김포종회에서 처음 참여하였고 사하공 아들 형제인 예천관 영호회장 임원을 만나서 별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울진관은(태수회장) 서하공의 백부 휘 중비의 후손이고, 순창관(현식회장)은 부안관의 전서공파에서 분관한 것이기에 앞으로 더욱 형제의 정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행사의 사진으로 보고드립니다.



〈백호 임제(林梯: 1549년~1587년)〉

조선 중기의 문인.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순(子順), 호는 백호(白湖)이다. 1576년(선조 9) 28세의 나이로 식년시 생원시와 진사시 양시에 각각 2등 5위와 1등 4위로 합격하였으며 이듬해인 1577년에 알성시 문과에 을과 1위로 급제하여 흥양현감(興陽縣監), 서북도 병마평사(西北道兵馬評事), 관서도사(關西都事), 예조정랑(禮曹正郎), 홍문관 지제교(弘文館知製敎)를 지냈다.

문집으로는 〈백호집:白湖集〉이 있다. 700여 수가 넘는 한시 중 전국을 누비며 방랑의 서정을 담은 서정시가 제일 많다.

절과 승려에 관한 시(詩), 기생과의 사랑을 읊은 시(詩)가 많은 것도 특색이다. 꿈의 세계를 통해 세조의 왕위찬탈이란 정치권력의 모순을 풍자한 〈원생몽유록: 元生夢游錄〉, 인간의 심성을 의인화한 〈수성지: 愁城誌〉, 그리고 식물 세계를 통해 인간역사를 풍자한 〈화사: 花史〉 등 한문소설도 남겼다.

〈백호문학관(白湖文學館)〉

백호문학관은 조선 중기 문장가였던 백호 임제 선생을 기념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전남-제30호) 개관하였다.

백호문학관은 지난 2013년 4월 13일 개관해 나주시에서 운영하다가, 2014년부터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 운영 이후, 전문가 채용을 통하여 전시물 재정비와 유물등록 등을 진행하면서 박물관 등록을 완료했다.

백호문학관은 백호 임제 선생의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물론 임제 선생의 문학작품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중에 있다.

백호 임제 조고는 우리에게 방계 조상이며 문인으로 많은 시와 문장을 남기셨다. 또한 백호임제 문학관을 건립하여 선양하고 있기에 임씨유적 탐방 및 워크숍을 통해 선조 선양의 방법을 검토하며 연구하고자 한다.



〈부안 연천제 춘향대제〉

부안임씨 판사공파는 매년 3째 토요일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에서 부안향교 주관으로 부안임씨 시조 휘 계미, 7세조 휘 춘, 9세 판사공휘 태조고님께 춘향대제를 올립니다.



화보로 보는 2024년 종회 활동

〈임경업 장군, 국난 극복의 상징적 인물〉

조선의 역사 속에서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장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임경업 (1594~1646). 그는 병자호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활약하며 조선을 방어한 인물입니다.

임경업의 출생과 배경

임경업은 평택임씨1594년, 충청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임경업은 무과에 급제하며 군사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전략과 병법에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훗날 그의 업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태종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며 병자호란이 시작되었고, 압록강 일대 방어와 조선 조정은 제대로 된 방어를 조직하지 못한 상태였고 왕과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때 임경업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적군에 맞서 싸웠으며 조선군이 분산된 상황에서도 용맹을 발휘했습니다.

백마산성 전투는 병자호란 중 임경업의 가장 눈부신 활약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646년, 임경업은 억울한 누명 속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은 그의 충성심과 업적을 기리며 애도했습니다. 훗날 그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며 결국 임경업은 조선의 충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주에 장군의 묘소와 그를 기리는 충렬사가 있으며 그가 낙안군수로 있을 때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낙안읍성을 요새와 같이 건축하여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었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성안에 임경업장군의 공적비가 있습니다.

방계조상인 임경업장군은 비록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업적과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국난의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로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조선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충주 임경업장군 묘소



낙안읍성 임경업장군 공적비



〈김포 종인 큰댁 고흥 휘 득충조고님 알현 배례〉

부안임씨 10대조 밀직공의 아드님은 9형제를 두시어 변연 하였으나 현재는 7째 아들 휘 득충(得忠)께서 병마절제사겸 서북도순무사를 역임하셨고, 후손들은 고흥, 낙안을 세거지로 번성하였다.

9째 아들 휘 득성(得成)은 중훈대부 사재감정 이셨고 장남 휘 계정은 한림학사로 김포군 통진을 세거지로 번성하였다.

휘 득충과 휘 득성은 형제로 후손들은 620여년을 떨어져 지내다 130년 전에 서하공 묘소를 찾아 다시 모여 세일제를지내고 있다. 김포와 고흥은 400km가 넘는 먼 곳이라 김포종인들이 단체로 큰댁을 방문하기 어려웠다. 지난 3월 일 종회임원 25명이 버스를 대절하여 단체로 처음 공식방문으로 고흥 포두면의 제실을 방문하여 휘 득충조고님의 위패앞에 알현 배례를 올리고 고흥의 일가분들과 저녁 만찬을 하며 동근연지同根連枝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先祖 歲一祭 案内

忠節公 諱 八及 (음) 3월 3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文憲公 諱 季美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연천제)
 西河公 諱 椿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諱 敬世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恭惠公 諱 淑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判事公 諱 澤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연천제)
 密直公 諱 大光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典書公 諱 蘭秀 (음) 9월 9일 충남 연기군 동면 불파미
 兵馬節制事 諱 得忠 (음) 10월 13일 전남 고흥군
 學士公 諱 繼禎 (음) 10월 1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독골